

#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 Program 프로그램

### • 멘델스존 (1809-1847)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작품 64 중 3악장

F. Mendelssohn ..... Violin Concert in e minor, Op.64

Andante-Allegretto non troppo 느리게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바이올린 박규민

### • 안정준 (1929-2009)

아리 아리랑

소프라노 오미선

### • 모차르트 (1756-1791)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W. A. Mozart ..... 'Konigen der Nacht' from Opera <Die Zauberflote>

소프라노 오미선

### • 스메타나 (1824-1884)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B. Smetana ..... 'Vltava -The Moldau' from Symphonic Poem <Ma Vlast>

Allegro comodo non agitato 빠르고 편안하게, 그러나 격하지 않게



통리장과 함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 찾아가는 연주회

2014. 12. 4 (목) 오후 3시 30분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지휘 : 금난새 협연 : 박규민, 오미선



○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에 나는 새  
**금 난 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 지휘자와 수원시향, 경기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 유라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난새 지휘자는 2006 한국 CEO 그랑프리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3월 계명대학교로부터 음악인으로서의 최초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1년 국립 창원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었으며, 2010년 10월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신선한 발상으로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지휘자 금난새는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정다운 메신저로서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아 정열적인 활동을 계속 펼쳐가고 있다.

○ **인천시립교향악단**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6월 1일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초대 상임지휘자로 김종석이 임명되어 창단과 함께 교향악단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84년 한국 교향악계의 원로인 임원식이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악단 발전의 중반기를 맞이하였다.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금노상을 영입, 국제규모의 4관 편성으로 증원 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는 메이지 오케스트라로 비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4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2,500여회 기획연주회, 미국, 유럽 등 해외 연주를 통해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국제 음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방 순회연주를 통해 지방 문화 활성화로 한국 교향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소프라노 오 미 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학과를 졸업,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을 졸업하고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립오페라단 상근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국립 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모세> <사랑의 묘약>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등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였으며, 코리아안심포니, 서울시향, 인천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모스틀리, 충남교향, 광주시향, 제주시향, 부산시향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다. 또한 베토벤 교향곡 9번, 헨델의 메시아 롯시니 페티트 미사, 모차르트 레퀴엠 등을 연주하였다.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벨리니, 페루초 탈리아비니, 아트리, 조바니 탈렌티, 수비아코 국제콩쿨대회에서 입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독교문화예술 오페라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기독교문화홍보대상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 **바이올린 박 규 민**



만 8세에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서울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규민은 금호영재콘서트 독주회를 통해 데뷔한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이다. 2010 바르코콩쿨 1위, 국민일보-한세대 콩쿨 1위, 2011 이화경향 콩쿨 1위에 이어 2012년 15세 때 부산MBC음악콩쿨 1위, <제4회 신한음악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국내대회를 석권한 뒤 첫 출전한 국제콩쿨 2013 Cooper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4년에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유라시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부천시향, 성남시향, 부산시향, 강남심포니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다.

또한 올해 6월 Klein International String Competition에서 입상과 함께 현대국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3주간의 미국 Yellow Barn Chamber Music Festival Young Artist Program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활약하는 등 실내악과 국외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